

인도주의 세기를 향한 굳은 연대

이케다 다이사쿠

SGI(국제참가학회) 회장

2015년 1월 26일

민중의 손으로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평화의 파동을

새로운 범세계적 목표가 지향하는 방향성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굳게 다짐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정해집니다. 비록 자신은 시련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는 같은 고통을 맛보지 않도록' 길을 여는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창설 이래 70년 동안 지구적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활동의 지평을 넓힌 유엔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곤과 기아 등에 부닥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둔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에 이은 후속 사업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공개작업반이 지난해 7월, 유엔총회에 목표(안)를 제출했습니다.

특필할 만한 점은 "모든 장소, 모든 형태의 빈곤에 종지부를 찍는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고 복지를 추진한다." 등의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존엄을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는 극심한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을 7억명 줄이고 초등교육의 남녀격차를 크게 해소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개선되지 않는 지역이나 제외된 사람들에 대한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공개작업반이 제시한 목표(안)는 그 과제를 염두에 두고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발표한 제언 등에서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새로운 범세계적인 목표의 기초로 하자고 거듭 주장한 만큼 '포스트 2015 개발 의제'에 진심으로 찬동합니다.

도다 제2대 회장의 지구민족주의

생각해보면 스승이신 도다 조세이(戶田城聖) 창가학회 제2대 회장이 헝가리동란¹으로 도탄의 괴로움을 맛본 사람들을 생각하며 "세계든 국가든 개인이든 '비참'이라는 글자를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외친 적이 있습니다.

인권운동의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박사가 "정의는 분할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사상통제에 대항하다 마키구치 쓰네사부로(牧口常三郎) 초대 회장과 함께 투옥된 도다 회장도 같은 마음이었습니

다. 왜냐하면 자신들만의 평화와 안녕도 없고, 자신들만의 번영과 행복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이 격렬해질 때도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또 자식을 찾거나 부모를 찾아 헤매는 민중이 얼마나 많은지" 하고 자신의 일처럼 걱정했습니다.

이렇듯 민중의 고통에 동고(同苦)하는 정신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다 회장은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민족에 속하든 인간은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며 '지구민족주의'의 비전을 제창했습니다. 그 골격을 이루는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는 도다 회장의 열렬한 염원이 바로 우리 SGI가 유엔 지원을 중심으로 펼치는 평화, 문화, 교육 운동의 원류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라는 포괄성을 '새천년 개발목표'의 후속 사업의 기반으로 삼고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 일은 어려움이 가득한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¹ 헝가리동란

1956년 10월, 동유럽 헝가리에서 탈스탈린화를 요구하는 민중 시위를 계기로 일어난 정치적 동란이다. 시위는 수도 부다페스트를 중심으로 각지로 퍼졌으나 소련군이 개입해 진압했다. 그 결과 1만 수천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약 20만명이 탄압을 피해 나라 밖으로 탈출해 난민이 되었다.

그러나 유엔헌장의 정신 즉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한다' '기본적 인권과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발달을 촉진한다'는 서약이 씌어 있는 전문으로 되돌아가 거기에 씌어 있는 '다음 세대' '인간' '모든 국민'이라는 말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엔이 세운 새로운 범세계적 목표를 궤도에 올리고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도전을 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가지 관점에서 제기하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명확히 한 역할

첫째는 비참한 사태를 낳는 요인을 없애기 위한 '정치와 경제의 재인간화(再人間化)'입니다.

지난해 8월, 제가 창립한 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선임연구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 동아시아에 고조되는 긴장감 등에 관해 사태를 악화시킨 요인을 찾고, 한편으로는 세계에 싹트기 시작한 희망적인 요소에 주목하고 그 움직임을 활발히 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때 '유엔 등의 국제기구 강화' '타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상상력과 시대를 여는 창조성이 돋보이는 청년의 육성'과 더불어 정치의 주요 목적을 한사람 한사람의 괴로움을 없애는 데 두자는 '정치의 재인간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주재한 평화학자 케빈 클레멘츠 박사(도다기념국제평화연구소 사무국장)와 대화했습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가 분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분쟁과 전혀 무관한 나라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또 안전보장을 이유로 인권을 제한하거나 국력증강을 앞세운 나머지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처를 뒤로 미루어 어렵고 궁한 상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재해나 이상기후로 많은 사람이 갑자기 빈곤 위기에 부딪치는 사태가 연이어 일어나자 그러한 상황을 정치가 진지하게 직시하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경제에도 해당됩니다.

이전에 로마가톨릭교회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게 나이 든 노숙자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 주식시장이 2포인트 하락한 것은 뉴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말해 경제의 모순에 경종을 울린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비롯해 거시적 지표의 동향만을 주시하는 데 급급해 걸핏하면 현실사회에 살고 있는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생활이 귀퉁이로 내몰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정책이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작용

본디 정치를 뜻하는 영어의 폴리틱스(Politics)가 그리스어의 ‘폴리티아(Politeia, 이상적인 시민공동체)’ 등에서 파생하고 경제라는 말도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하듯 민중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본디 정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 뜻이 퇴색되어 정치나 경제를 움직이는 행동원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낳은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석존이 원시불교에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의 근본으로서 강조한 ‘달마’가 떠오릅니다.

달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드르’에서 만들어진 말로 한역불전에서는 ‘법(法)’ 또는 ‘길<道>’로 번역했습니다.

즉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데 이것을 달마라고 합니다.

정치나 경제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양상이 바뀌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는 굽히면 안 되는 원칙이나 무시하면 안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근본에 흐르는 달마를 근간으로 곳곳이 살아가야 한다고 촉구한 석존은 말년에 남긴 설법에서 달마를 ‘모래섬<洲>’에 비

유했습니다.

즉 홍수가 일어나 일대가 수몰될 지경일 때 사람들이 목숨을 지키고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모래섬'을 예로 들어 달마의 작용이 실제로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 비유를 부연하면 정치와 경제가 본디 해야 할 역할도 사회가 시련에 부딪혔을 때 민중 한사람 한사람, 특히 가장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삶의 희망'을 되찾을 발판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가 성립되는 과정을 민중의 시선으로 되돌아보면 그 원류에는 분명히 투표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기원과도 같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경제의 원류에도 일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씨를 뿌리는 사람의 심정이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시적인 규모가 되면 정치세계에서 민주주의 결핍(다수의 민의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제세계에서 머니 자본주의 폭주(실물경제 규모를 훨씬 웃도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투기가 실물경제에 파괴적인 타격을 주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간디의 신조와 불법의 '중도' 사상

그러한 사태에 제동을 걸고 정치나 경제의 궤도를 수정하려면 어떠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저는 마하트마 간디가 우인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말을 하나의 실마리로 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기력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묻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다시 말해 간디가 중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은 정치역학도 아니고 경제이론도 아닙니다. 자신과 같은 세상에 사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불법에서 말하는 '중도' 사상과 기본적으로 통한다고 느꼈습니다.

'중도'는 단순히 극단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치우치지 않은 '바른길'이라고 하듯이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이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늘 되물어 자신의 '삶의 증거'를 사회에 남기며 살아가는 것이 본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존이 말년에 '달마(법)를 모래섬으로 삼으라'고 강조했을 때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을 의처(依處)로 삼으라'고 동시에 촉구한 것은 '중도'의 본뜻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의처로 삼는다는 말은 자기본위의 욕망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불교학자인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는 석존의 진의를 "누구 앞에 내보여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하면서도 진정한 자신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지, 그 영향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끊임없이 사색하면서 그것을 '진정한 자신'을 뚜렷이 나타내는 실마리로 삼아 인간성을 연마한다, 그러한 행동을 거듭하다 보면 정치나 경제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재고하게 되고 사회의 토양이 재인간화를 향해 차츰 일구어진다, 나는 '중도'의 진가가 이러한 역동적인 변혁에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심문에서 외친 신념

창가학회의 마키구치 초대 회장은 자신이 내린 결단이 때에 따라서는 사회 분위기나 시류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렇더라도 신념을 관철하지 않으면 '불선(不善)'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대악'을 불러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구치 회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사상통제를 강행한 군부 파시즘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끊임없이 행동했습니다.

군부는 회합을 감시하고 기관지도 폐간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투옥된 마키구치 회장이 당국의 심문에 다음과 같이 주장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간의 휘예포품 등에 신경 써서 나쁠 것은 없지만, 선(善)한 일도 베풀지 않고 이른바 남들처럼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소선(小善)에 그치고 마는 생활이나 심하게는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좋다는 생활을 모두 방법(謗法)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일반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거스르고 어기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키구치 회장의 말에는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거스르는 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에 정치와 경제의 영향으로 비참한 사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좋다'고 하는, 타인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그러한 풍조가 이어지는 한, 일시적으로는 번영을 구가하는 듯 보여도 '홍수여, 내가 죽고 난 뒤에나 와라'와 같은 염치없는 생각 때문에 생긴 비참한 사태만 남을 뿐 '지속가능성의 요구'는 바랄 수도 없습니다.

미래의 열쇠를 쥐 5퍼센트의 힘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면 정치와 경제의 주요 목적이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이 되도록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정치와 경제의 재인간화'의 회로를 사회에 부착하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 움직임은 이미 몇몇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정치분야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등이 추진하는 '국가인권기구'가 110개국으로 넓혀졌습니다.

저도 1998년 제언에서 인권에 관한 법 제도나 인권교육 등의 추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비정부기구(NGO)와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면서 더 바람직한 기관을 모색하자고 제창한 바 있습니다.

또 경제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가맹국 중에서 11개국이 공동으로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머니게임 과열이 금융위기를 일으켜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2008년 리먼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금융거래에 일정한 과세를 부과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를 통해 재분배 효과를 거두려는 제도로 내년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6년 전 제언에서 이런 금융거래세를 비롯해 각국이 앞다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새천년 개발목표'를 촉진하는 국제연대세(稅)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 앞으로 유엔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의 재인간화'의 최대 원동력은 인간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한가지 원칙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는 민중의 연대입니다.

마키구치 회장도 "사회정신이라고 해도 각 개인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의식변혁이 "서로 전파되고 연결되어 결국 사회 전원에게 미쳐 크나큰 사회정신을 낳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에 평화학자인 엘리스 볼딩 박사와 이 사회변혁의 방정식에 관해 대화했을 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사람 한사람의 성장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일 말고 평화롭고 건전한 지구의 미래를 건설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박사가 예전에 말한 "겨우 5퍼센트에 불과한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힘이 미래 사회의 동향을 결정합니다. 그 5퍼센트가 결국 문화 전체를 변혁합니다." 하신 말이 희망의 메시지로 가슴속 깊이 와 닿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재인간화'를 추진하는 열쇠는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연대의 깊이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민중의 연대를 일본과 국제사회에 구축하는 일이 시대를 변혁하는 큰 물결을 만듭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둘째는 괴로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임파워먼트(내발적인 힘의 개화)의 연쇄'입니다.

요 몇해 사이, 동일본대지진을 비롯해 중미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과 필리핀을 덮친 태풍 등 재해나 이상기후가 세계 각지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20년 전 한신아와지대지진이, 10년 전 수마트라지진과 인도양쓰나미가 일어났듯이 세계에서 재해는 늘 중대한 인도적 문제였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만 이재민이 세계에서 2200만명에 이르러 그 수는 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의 세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집을 잃는 것은 참으로 큰 슬픔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도 전쟁 중에 아버지의 병과 형들의 잇따른 징병으로 형편이 어려워져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사 간 집도 공습에 대비해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철거당하고, 그 다음으로 옮긴 집도 이사하자마자 소이탄을 맞아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정든 곳을 떠나야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분하고

슬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합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살아온 세계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한 진정한 과제는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가 계속 지원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재해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처나 안심하고 의지할 곳을 잃는 슬픔'이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비참한 문제임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일본만 보아도 예순다섯 살 이상의 고령자 중 20퍼센트가 빈곤 상태에 놓여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빈곤으로 괴로워하는 어린이도 여섯 명 중 한 명에 달합니다.

그중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다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사 누스바움 박사의 고찰에 주목했습니다.

박사는 사회계약설²과 같은 전통 이론이 고령자나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람들의 괴로움을 간과하는 요인 중 하나로 공리주의(功利主義)를 들고 그 위험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개인이 겪는 심한 고통과 가난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의 행운으로 상쇄될 수 있다. 여기에는 각자의 인생이 한번뿐이라는 가장 중요한 도덕적 사실이 빠졌다.”

여기서 박사는 '상호유리성(相互有利性, 상호 존재가 이익을 낳는 것)'이 사회의 유일한 기본원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에서 벗어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를 재구축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라도 병, 노령, 사고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응시하고 사회의 궤도를 수정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깊이 관련된 과제라는 점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² 사회계약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장하려면 서로 계약을 맺어 사회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근대 정치사상이다. 근대국가의 정통성과 존재 이유를 설명한 이론으로, 시민혁명이 일어난 17, 18세기에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홉스, 로크, 루소가 있다.

‘생로병사’를 바라보는 불법의 안목

누스바움 박사가 제기한 문제는, 석존이 출가를 결심하는 기연(起緣)이 된 사문유관(四門遊觀)³ 일화가 상징하듯, 생로병사에 따른 고통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를 근본 과제로 삼아온 불법의 안목과도 상통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때 석존이 늙고 병들어 겪는 괴로움뿐 아니라 길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이나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병으로 몸져누운 사람, 즉 주위와 관계가 끊어져 홀로 괴로움을 안고 있는 상황을 깊이 마음 아파한 것은 아닐까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석존은 교법(教法)을 가르치면서 직접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간호하고 간병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을 엄히 훈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벗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가르침도 있지만, 병에 걸려도 나이를 먹어도 생명의 존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관계를 맺지 못해 점점 더 괴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석존은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대승불교는 생명과 생명이 만들어내는 연관성이 세계의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만든다는 연기의 법리를 설합니다. 이 연관성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상대의 생명을 존엄한 빛으로 서로 비출 수 있고, 병들거나 늙는 것도 인생을 장엄하게 장식하는 양식으로 승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연관성은 저절로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예배할 때 떠오른 그림자 또한 나를 예배하느니라.”(어서 769쪽) 하신 말씀처럼 타자의 존엄을 자신의 존엄과 똑같이 더없이 소중히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톱니바퀴가 맞물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고받는 눈물이나 웃음이 그대로 서로에게 ‘살아갈 용기’의 불을 밝혀줍니다.

³ 사문유관(四門遊觀)

석존이 석가족 왕자시절에 성문 밖으로 놀러 나가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인간에게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사고(四苦)가 있음을 깨달은 일을 말한다. ‘사문출유(四門出遊)’라고도 한다. ‘수행 분기경’권하에는 석존이 왕궁의 동문, 남문, 서문으로 나가 늙어서 쇠약한 사람, 병들어 괴로워하는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마지막에 북문으로 나가 출가자를 보면서 출가를 결심한다는 이야기가 찍어 있다.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창한 에릭 에릭슨은 연기설의 ‘다이너미즘’에도 통하는 관점을 이렇게 그린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히 만난 인연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한쪽도 따라 움직이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저는 에릭슨의 사상을 섞어 연기설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즉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존엄을 빛내면 지구와 사회를 비추는 ‘임파워먼트’의 주체자로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주제입니다.

볼딩 박사가 보낸 만년의 모습

먼저 첫째 열쇠는 ‘성숙한 인간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상입니다.

이 말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이러한 광경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상대의 마음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한 마음이 생명에 내재한 내발적 힘을 불러일으켜 존엄한 불을 밝히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앞서 소개한 평화학자 엘리스 볼딩 박사가 보낸 만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 SGI 멤버가 방문했을 때 여든 살을 넘긴 박사는 “요즘은 책을 쓸 힘은 없지만, 동료나 후배가 내는 책에 머리말을 쓰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열심히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고 근황을 말했다고 합니다.

병이 생겨 요양시설에 들어가서도 ‘비록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문병을 온 제자 클레멘츠 박사에게도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칭찬하고 의료 관계자들의 배려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예전에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진심으로 맞이했을 때와 똑같이 문병 온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한 주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인간성을 더욱 빛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으로 상대의 마음을 밝히고 '살아온 증거'를 주위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존엄한 생명의 빛에서 언제 어떠한 때에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의 위대한 힘을 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의 의미를 재검토

둘째 열쇠는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행위가 비참의 확산을 막고 연쇄를 끊는 힘이 된다'는 에릭슨의 생각입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자취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말함으로써' 과거의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판을 다시 짤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그 가능성에서 인생의 희망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가능성은 분명 우리 SGI가 신앙활동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온 체험담운동으로 멤버 한사람 한사람이 날마다 실감하고 서로 깊이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키구치 초대 회장 시절부터 소수 인원이 모이는 '좌담회'를 중심으로 펼쳐온 전통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보람은 말할 것도 없이, 가족을 잃거나 병에 걸리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직장 가정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비롯해 차별이나 편견 등에 부딪친 체험을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말함으로써 '한사람 한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소중함'을 모두 함께 나누는 자리가 좌담회입니다.

인생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힘껏 격려합니다. 그렇게 체험을 교류하면서 체험을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지금의 자신을 만드는 데 빠뜨릴 수 없는 이정표'였다고 생각해 앞으로 인생을 개척하는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도 또한 체험을 듣고 자신이 안고 있는 과제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러한 동고를 바탕으로 하는 '임파워먼트의 연쇄'를 신앙으로 넓혀왔습니다.

덧붙여 에릭슨이 간디를 자신의 심리학 이론의 모델로 삼아 직접 평전까지 썼듯이 고뇌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 고뇌를 사명으로 바꾼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삶)는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의 파동'을 넓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평전에는 간디 슬하에 모인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치된 사람, 박해당한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하는 관심이 처음에는 젊은이들의 가정 안에 머물렀지만 점점 광범위하게 넓혀져 강렬한 관심거리가 되어 하나로 맺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써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간디를 움직이게 한 정신과 같았을 것입니다.

청년시절에 받은 인종차별을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권투쟁을 시작해 인도에서도 비폭력 투쟁에 몸 바친 간디의 가장 큰 바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억압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없는 정열에 젊은이들도 깊이 감화했습니다.

그 삶은 간디가 서거한 뒤에도 킹 박사나 남아공의 만델라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길잡이별'이 되었습니다.

1995년 7월, 만델라 대통령과 다시 만났을 때 제가 간디의 탄생 125주년을 기념해 기고한 학술지에 만델라 대통령도 간디의 옥중투쟁에 관한 논문을 기고한 일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의 논문에는 "20세기 초두(初頭)의 죄수 간디도 그 괴로움을 견디었다. 시대는 다르지만 간디와 나 사이에는 끈이 하나 있다. 그것은 공통의 옥중체험이고 부당한 법률에 대한 항의이자 평화와 화해를 위한 우리의 뜻이 폭력으로 위협받았다는 사실이다." 하고 써어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27년 반 동안의 옥중투쟁을 이겨낸 것도 자신처럼 가시밭길을 걸은 선인(先人) 간디의 존재를 커다란 버팀목으로 삼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부터 반세기 전, 제 평생사업인 소설 '인간혁명'을 집필하기 시작하면서 주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룩고 한 나라의 숙명전환도 이루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전환도 가능케 한다."

이 주제와 공명하는, 국경을 초월한 공간적 확대와 세대를 초월한 시간적 확대를 가능케 하는 것이 '임파워먼트 연쇄'의 진면목이 아닐까요.

개인의 인권침해를 결코 묵인하지 않는다

셋째는 공생의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차이를 뛰어넘은 우정의 확대'입니다.

최근 분쟁이나 내전 양상이 크게 바뀌면서 새로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이외에 다른 국가나 집단이 관여하는 '분쟁의 국제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리아에서 발생한 내전처럼 정전(停戰)이나 평화를 되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덧붙여 군사행동의 목적이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의사를 무력으로 상대에게 인식시키는 전통적인 자세'에서 '적으로 간주하는 집단을 배제하는 자세'로 중심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원격공격 등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시민을 끌어들이는 사태가 분쟁 지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으로 간주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도 자기와 똑같은 '인간'이고 '생존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망설임조차 사라지는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어쨌든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무기와 배제하겠다는 사상이 뒤섞여 일어나는 참극(慘劇)은 국제인도법뿐 아니라 '인간다운 길'에 비추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유엔이 자율살상무기(LAWs)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현재 분쟁 지역에서 '전투 자동화' 직전까지 진행된 현실을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그와 함께 유의해야 할 점은 배제 사상이 분쟁 지역뿐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도 2년 전부터 '인권을 최우선으로(Human Right Up Front)'라는 제목으로 계획을 시작하고, 개인의 인권침해를 경증으로 삼아 대규모 잔학행위나 전쟁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즘 많은 국가에서 사회문제가 된 증오언설(Hate Speech)은 증오범죄(Hate Crime)처럼 직접적인 폭력을 동반하지 않지만, 뚜렷한 증오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다는 점에

서 뿌리가 같고, 어떤 집단에 대한 것이라도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인권침해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차별에 따른 폭력과 인권억압을 당한다면 누구나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민족이나 집단을 향한 때 편견이 생겨 '저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태확산을 문제의 단서로 막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집단 심리에 휩쓸리지 말고 타자와 마주하는 회로를 열어야 합니다.

사리불과 천녀에 관한 불교설화

이 문제를 생각하면 시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대승불전 '유마경'에 나오는 사리불과 천녀의 일화입니다.

석존의 명을 받든 문수보살이 사리불 일행과 함께 병든 재가신도 유마힐의 집에 문병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문수보살과 유마힐은 '불교에 관해 대화'했는데, 대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천녀가 기쁨을 표현하듯 모두에게 꽃을 뿌렸습니다.

떨어지는 꽃이 몸에 닿자 사리불은 수행자인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급히 떨어내려고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천녀가 '꽃은 사람을 분별하지 않는데 당신은 꽃으로 사람을 분별하려고 한다'고 하며 이런 집착이 사리불의 마음을 옳아매 꽃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사리불은 이해는 했지만 계속해서 천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천녀는神通력을 발휘해 사리불을 천녀의 모습으로, 자신을 사리불의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깜짝 놀라 당황하는 사리불에게 천녀는 사리불이 아직도 분별에 깊이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깨우치게 하고 본디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사리불은 뜻밖의 체험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의 차이에 따라 마음을 옳아매면 안 되고 어떠한 존재도 본디 고정된 특성은 없다고 깊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먼저 사리불이 천녀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상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했는지를 자기 일처럼 느끼고 잘못을 반성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화에 따라 많은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 이동하는 것이 일상이 된 오늘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집단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이주했을 때 이번에는 자신이 그러한 시선을 받는 일을 적지 않게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긴장이 높아질 경우, 자신들이 추구하는 '평화'나 '정의'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사리불이 느낀 시선의 반전 즉 자신과 상대를 둘러싼 구도가 반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칼'이 자신이나 가족을 겨눈 상태라고 상상해 본다면 과연 자신의 주장이나 처지를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처음 사리불이 석존에게서 문병하러 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유마힐과 마주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사양했습니다. 문수보살 일행과 함께 유마힐의 집에 갔을 때도 자신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보이지 않아 언짢았습니다.

한편 문수보살이 유마힐에게 병에 걸린 까닭을 묻자 "일체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에는 '나를 걱정한다면 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생각해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말하자면 사리불의 마음은 '자기에 대한 집착'이 크게 자리 잡은 데 반해 유마힐의 마음은 자타피차(自他彼此)라는 구별 없이 '고통을 떠안은 모든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이렇게 대비된 모습을 그린 '유마경' 이야기를 현대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본디 공유해야 할 선(善)인 평화와 정의도 '자기에 대한 집착'으로 분할하고 충돌한다면, 자신과 다른 집단에 가하는 폭력이나 인권억압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지구온난화에 따라 증가하는 이상기후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괴멸적 피해 등, 누구도 바라지 않는 비참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과제를 공유하는 연대'를 넓히는 일이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열쇠입니다.

상대방 이야기에 서로 귀 기울인다

그러한 연대를 구축하려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대화와 우정의 확대입니다.

일찍이 제가 이슬람과 불교를 주제로 여러 번 대화한 인도네시아 와히트 전 대통령이 “민족성이나 문화적 차이 또는 역사적 배경에 상관없이 대화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얼굴’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나서 거듭 대화하며 서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민족이나 종교 등의 속성이 서로에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대립하지 않고, 만남을 통해 얻은 공감과 신뢰를 기축으로 그 상대만이 연주할 수 있는 생명과 생명의 교향곡을 풍부하게 울려 퍼뜨린다, 거기에 우정의 참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진정한 세계의 풍경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치로 빛난다.”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정은 서로 다른 속성에 마음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이 간직한 인간다운 생명의 빛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면서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성입니다.

43년 전, 토인비 박사와 나눈 대담을 기점으로 민족적, 종교적 배경이 다른 각국의 지도자 그리고 지성인과 인류의 미래를 둘러싼 과제를 공유하고자 거듭 대화하면서 이러한 돌도 없이 소중한 우정의 빛을 하나하나 키워왔습니다.

우리 SGI는 이 일대일의 우정을 기반으로 배타주의에 빠진 ‘전쟁의 문화’에서 차이를 다양성의 원천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서로 존엄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평화의 문화’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교육교류와 문화교류를 통해 한사람 한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면서 우정의 유대를 넓혔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배타주의로 기울었을 때, 이 우정의 유대가 기운 각도를 조금이라도 원래대로 되돌리는 자동안정장치(stabilizer) 역할을 해서 집단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사회의 완강성(頑強性)으로 이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 정치나 경제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도 교류를 끊지 않고 ‘대화와 의사소통의 회로’를 유지하고

자 마음을 쓰고 이러한 노력을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했습니다.

지난해 제가 창립한 민주음악협회에 '민음음악박물관부속연구소'가 새롭게 발족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105개국·지역과 깊이 교류한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비롯한 '문화의 힘'이 평화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가능성을 추구할 생각입니다.

다 함께 '가장 좋은 자기'를 나타내는 길

더욱이 SGI는 문명간 대화나 종교간 대화에 적극적으로 힘쓰면서 증오와 폭력의 연쇄를 단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훈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에서 출발해 과제를 공유하면서 서로 다른 문명이나 종교가 길러온 영지를 결집하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나 행동규범을 부각시키는 '문제해결지향형'의 접근을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저는 교우를 맺은 체코의 하벨 전 대통령이 일찍이 21세기를 전망한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유럽에 주어진 유일무이한 중요 과제는 '가장 좋은 자기'일 것 즉 그 가장 좋은 정신적 전통을 되살려 그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생사회를 지구규모로 실현하는 데 창조적으로 관여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논하는 유럽을 각자의 문명이나 종교로 바꿔 말하면 우리 SGI가 지향한 '대화'의 본보기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문명간 대화와 종교간 대화의 가장 큰 의의도 서로 '가장 좋은 정신적 전통'의 숨결을 주고 받으며 인간성을 완성하기 위한 눈을 연마하면서 다 함께 '가장 좋은 자기'를 바탕으로 힘찬 행동을 일으키는 데 있지 않을까요.

SGI는 이러한 활동을 추진하면서 서로 폭력이나 억압에 가담하지 않고 공생 정신의 자기장이 되자고 약속하는 '부전(不戰)의 방파제'를 쌓아 올려 자신이 바라지 않는 비참함을 누구에게도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인도주의(人道主義) 연대'를 넓히고자 계속 도전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유마경'에는 석존 슬하에 모인 청년 500명 앞에 전 세계를 뒤덮은 보개(寶蓋)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산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라 500명이 각자의 우산 (즉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는 바람)을 모아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자 손에 든 우산으로 비바람이나 강한 햇볕에서 자신의 몸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걷는 청년들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만들어낸 전 세계를 감싸는 거대한 보개의 이미지에서 저는 인간의 연대가 낳는 한없는 가능성을 보는 듯합니다.

유엔이 2030년을 향해 추진하는 새로운 범세계적 목표의 주요 목적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온갖 위협과 비참에서 지키기 위한 '연대의 우산'을 만드는 일에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기 위해 종래의 발상을 뛰어넘는 창조적인 접근이 시급히 필요한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함마르셴드 사무총장의 신념

창설 70년을 맞는 유엔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뉴욕의 유엔본부를 처음 방문한 해인 1960년에 발표한 연차보고서에 다크 함마르셴드 제2대 사무총장이 쓴 한 구절입니다.

“유엔은 우리 세대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만들어낸 유기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 정치적인 자의식을 실현한 국제사회는 유엔이라는 조직을 의의 있게 활용해 유엔을 만들어낸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엔은 주권국가의 집합체로서 늘 제약과 한계에 부딪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엔을 무대로 성장한 '국제사회 의식'이 바로 본디 유엔이 해야 할 사명을 이루는 데 돌파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에서 보듯이 유엔헌장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나라도 흔들 수 없는 원칙'을 명확히 세워 각국의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인권선언 기초에 깊이 관여한 철학자 자크 마리탱은 “이론적인 사고방식에서 서로 대립하는 사람들도 인권목록에는 순수하게 실천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하고 강조했는데 사상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멤버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집약할 수 있던 까닭도 유엔이라는 무대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도 유엔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인간의 안전보장' 같은 중요한 지표를 제기하거나 국제 연도와 유엔 10개년을 통해 매우 중요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아동노동을 비롯해 국내차원에서는 놓치기 쉬운 심각한 문제를 잇달아 다뤄 국제적인 대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각 분야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확대받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에 주의를 불러 일으켜 국제법의 대상을 '국가'만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으로 넓혀서, 생명과 존엄의 보장을 꾀하는 영역을 넓혀온 일은 유엔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 개발목표'보다 심층적인 내용이 기대되는 새로운 목표를 채택하려는 지금, 함마르셴드 사무총장이 '관습적인 사고와 형식에 빠져버린 수법이라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도전하자'고 주장한 유엔의 '창조적 진화'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해 6월, 그 선구라고 할 수 있는 유엔기구의 강화차원에서 하나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의 강화책으로 유엔의 모든 가맹국이 참가할 수 있는 토의 마당을 만들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처음으로 '유엔환경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에는 환경문제 해결에 힘쓰는 시민사회 대표와 기업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먼저 전제조건으로 '모든 나라가 토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유엔과 시민사회의 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수많은 과제에 맞서려면 그 두 가지 요소가 뒷받침되는 '행동의 공유(共有)'를 구축하는 일이 창설 70년을 맞는 유엔이 이루어야 할 '창조적 진화'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구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기 위해 '행동의 공유'가 시급한 ① 난민과 국제이주자의 인권보호 ② 핵무기 금지와 폐기 ③ 지속가능한 지구사회 건설에 관해 유엔의 사명에 입각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난민과 피난민이 5120만명

첫 번째, '행동의 공유'로서 난민과 국제이주자의 인권보호입니다.

첫째로 올가을에 유엔이 채택할 새로운 범세계적 목표에 '모든 난민과 국제이주자의 존엄과 기본적인 인권을 지킬 것'이라는 항목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합니다.

서두에서 다른 것처럼 스승인 도다 제2대 회장이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 하고 외쳤을 때, 염두에 둔 것은 1956년 헝가리동란으로 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고 도탄에 빠져 고통받는 모습이었습니다.

20세기를 '난민의 세기'라고 부른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자신이 태어난 공동체로 귀속될지가 불분명하고, 절연(絶緣)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이 된 그 사람들은 '시민권에 보장된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보다도 훨씬 근본적인 것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참으로 인간존엄의 토대가 되는 '자기를 자기답게 만드는 세계'를 통째로 잃어버리고 인권이 뿌리째 뽑혀버린 비참한 상황이 바로 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입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생긴 유럽 난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1950년에 잠정적인 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동란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도 난민문제가 잇달아 발생해 몇 번이나 활동기한을 연장하다가, 2003년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난민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기구'로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난민을 구호한 UNHCR의 공헌은 매우 크고, SGI도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가 더욱 혼미해지면서 난민문제는 더한층 심각해져, 국외로 탈출한 난민과 국내 피난민 그리고 비호 신청자를 포함하면 5120만명에 이릅니다. 게다가 난민의 절반이 열여덟 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제기한 세가지 자각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리는 점은 어쩔 수 없이 5년 이상 자기 나라를 떠나서 살아야 하는 '장기난민상황'입니다.

그 수는 UNHCR이 보호 대상으로 삼은 난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또 체재 기간이 평균 20년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피난 나온 사람들의 자녀나 손주 세대까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일 우려가 높습니다.

또 세계에서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무국적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UNHCR에서는 '무국적자' 근절 캠페인을 10년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의료나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감추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인권억압이나 폭력에서 도망치듯 피난 나오다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해 아이들까지 무국적자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보면서 마키구치 초대 회장이 '인생지리학'에서 제기한 인간의 세가지 자각을 떠올렸습니다.

즉 인간은 ①지역에 뿌리 내린 '향민(향토민)' ②국가 안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③세계의 관계를 의식하며 사는 '세계민(세계시민)'이라는 세 가지 자각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중층적인 정체성을 자기답게 빛내야만 인생의 가능성을 풍요롭게 꽃피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난민이나 무국적자가 된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길만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자기답게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며 사는 길도,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대해서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향해 행동하는 길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유엔은 이러한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는 일을 '창조적 진화'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목표의 골격으로 삼아야 할 '모든 장소' '모든 사람'이라는 포괄성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도전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 희구하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본래의 뜻에 부합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삶의 고충과 소외감 고조

난민문제와 함께 세계에서 2억 3200만명에 이르는 국제이주자를 둘러싼 문제에 눈을 돌려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일도 급선무입니다.

오랜 경제불황으로 사회불안이 증폭되는 나라들 사이에서 이주노동자를 나쁜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가족까지 차별하고 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규직 고용의 기회를 비롯해 교육과 의료를 받을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일상생활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아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삶의 고충과 소외감에 힘겨워하는 이주노동자 가족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유엔에서도 이주노동자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개선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년 전 '이주와 개발에 관한 유엔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주와 그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운 범세계적 목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주제를 개발차원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주자와 가족이 맞닥뜨린 고통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기본적 인권보호를 새로운 목표에 명확히 포함하자고 주장합니다.

1990년에 채택했지만 아직 가맹국이 적은 이주노동자권리조약⁴의 비준을 촉진하고 국제노동기구가 제창하는 '일다운 일(Decent work,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의 확보 등, 기존의 방안도 활용하면서 국제이주자에게 초점을 맞춘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재해지 샌다이에서 열릴 유엔방재세계회의

둘째로 난민을 많이 수용하는 지역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난민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분쟁이나 내전과 더불어 재해와 이상기후 등으로 많은 사람이 난민 상태에 놓이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⁴ 이주노동자권리조약

정식 명칭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2003년에 발효했다. 이주노동자에게 취업국 국민과 똑같은 보수와 사회복지 그리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이 있다고 보장하는 한편, 그 자녀들에게도 출생과 국적을 신고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는 201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할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한 정상회담(World Humanitarian Summit)'을 위해 각 지역에서 여는 준비회합의 논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활동에 대한 정상회담은 분쟁과 빈곤을 비롯해 재해와 이상기후 등으로 일어난 여러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하나가 되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지난해 7월 도쿄에서 연 준비회합에서는 재해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회합에서는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인도적 지원활동의 중심에 놓고 사람들의 임파워먼트를 더 강화시켜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줄곧 강조했습니다.

이 관점은 우리 SGI가 재해지역을 부흥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괴로움에 맞닥뜨린 사람일수록 똑같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올해 3월에는 센다이에서 제3회 유엔방재세계회의를 엽니다.

SGI도 이번 회의의 관련행사로 '동북아시아의 연대로 회복탄력성(Resilience) 강화'라는 주제로 회의를 엽니다.

'회복탄력성'은 재해에 따른 피해의 확대를 막고 부흥을 돕는 '사회 회복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서 더 깊게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시민사회 대표가 모여 그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 도호쿠 청년부가 '방재와 부흥을 위한 청년의 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그 밖에도 '신앙을 기반으로 한 조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종교단체로서 복구 지원방식을 찾는 토의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어느 회의나 '임파워먼트의 강화'를 통해 한사람 한사람의 인간, 특히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회복탄력성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주제는 '장기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난민의 존엄과 인권문제를 생각하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적 위기는 분쟁과 재해라는 원인은 달라도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괴로움, 인생과 생활의 터전을 잃은 괴로움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한사람 한사람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이 난민의 80퍼센트 이상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장기난민' 문제에는 아프리카의 대처가

주목할 만합니다. 아프리카연합(AU)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⁵가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방안책 마련에 힘썼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아프리카에서는 난민이 비호국(庇護國)에서 장기 체류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사실상 통합'이 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사실상 통합'에는 ①강제송환 우려가 없다. ②캠프 생활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원조에 기대지 않고 생계를 꾸릴 수 있다. ④교육, 직업훈련, 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⑤관혼상제를 통해 수용하는 지역과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몇몇 농촌지역에서 그 특징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ECOWAS는 2008년에 연 각료이사회에서 가맹국의 시민과 지역 내 난민을 평등히 대하자고 제안해, 나이지리아 등에 체류하는 난민은 출신국에서 여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난민은 이주노동자로서 새로운 지위를 얻어, 정식으로 비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에 더 인간적인 얼굴을 부여

저와 우정을 맺은 나이지리아 작가 월레 소잉카 씨는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이 정의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관대히 받아들이는 관습이 있는데 그러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접근방식에서 저는 난민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55년 전, 유엔본부를 처음 방문했을 때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프리카 각국의 대표들이 청신한 기세로 토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21세기는 아프리카의 세기가 된다'고 확신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⁵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관세철폐나 무역촉진 같은 경제활동을 통합하고 추진하기 위해 1975년에 설립한 경제공동체다. 서아프리카지역 15개국이 가맹했다. 난민문제에 관한 지역협력은 안전보장의 통합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고, 난민을 망명국에 정착시키고자 합의를 진행해 왔다.

만델라 대통령의 인권투쟁과 환경운동가 왕가리 마타이 박사의 나무심기운동을 비롯해 인류가 희구하는 '평화와 인도주의의 21세기'를 앞서 건설하려는 위대한 도전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지역간 협력을 모색하고 난민문제에 대응한 아프리카의 경험이 새로운 범세계적 목표에 도전하려는 유엔에 보내는 '세계에 가장 인간적인 얼굴을 부여하는 선물'이지 않을까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급증하는 중동 등도 아프리카의 사례 등을 참고해 '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협력'에 충실하길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국가가 난민 수용국과 협력하여 임파워먼트 강화를 책임지고, 수용국의 청년과 여성도 함께 교육과 취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지역 내 시민을 위한 공동 임파워먼트'로서 추진하면 어떨까요.

그 기회를 활용해 난민과 수용국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인 유대를 두텁게 만드는 일이 난민을 지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지역 전체의 회복탄력성 강화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55개국·지역이 찬성한 공동성명

두 번째, '행동의 공유'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입니다.

유엔 창설과 함께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과제로 제기된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총회 제1호 결의안으로 채택한 핵무기 문제 외에는 없습니다.

유엔헌장을 검토하던 단계에서는 핵무기의 존재가 걸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군축보다도 안전보장에 의견이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헌장을 채택하고 약 한달 뒤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세계가 충격에 휩싸이면서 유엔에서도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의안은 '원자폭탄을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국가의 군비에서 철폐한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예외 없는 완전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외침은 냉전대립의 격화로 흐지부지되는 듯했지만, 한국전쟁에서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는 데

큰 힘이 된 '스톡홀름 어필'의 서명운동이나 1957년 동서대립을 무릅쓰고 과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퍼그워시회의'가 제기한 내용 등이 기초가 되어 핵무기를 규제하는 조약을 만들자는 기운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서 점점 기운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핵전쟁 직전까지 간 1962년 쿠바위기 등의 교훈이 서로 맞물려 가까스로 1970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약을 통해 성실한 핵군축을 약속하고, 유엔 창설 이후에 끝내지 못한 미완 프로젝트가 NPT로 이어졌지만, 발효되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핵폐기를 이루지 못한데다 핵군축은 정체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바라는 움직임이 새로운 형태로 넓혀져 지난해 10월에는 155 개국이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공동성명'에 찬성했습니다.

이것은 유엔가맹국 중 약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통의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세 번의 국제회의에서 검증된 내용

그리고 2013년 3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맨 처음 연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지난달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 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핵무기 사용이 미치는 인도적 영향에 관해 계속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회의에서 도드라진 사실 중 피해를 입은 사람 측에서 보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아래 세 가지입니다.

- ①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핵폭발로 일어난 직접적 피해에 적절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가 어렵다는 점
- ②핵폭발 영향은 국경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불러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 ③간접적 영향으로 사회개발을 막고 환경도 나빠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등 약자의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점

빈 회의에 처음 참석한 미국과 영국도 지금까지 비인도성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왜 열렸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보유국도 핵무기 사용이 얼마만큼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지 그 실태를 검증하는 일이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임을 인지한다는 뜻이겠지요.

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에는 의견이 나뉩니다.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의 나라가 '괴멸적 결과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 폐기밖에 없다'는 인식을 나타내지만, 보유국과 그 동맹국 사이에서는 '핵확산이 추진되는 한은 핵억제정책을 계속 펼치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흔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엔 창설 이후에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를 달성하려면 어떠한 '행동의 공유'를 형성하면 좋을까.

먼저 양쪽 사이를 가르는 골이 깊은 듯 보이지만, 실은 바닥은 같은 바위로 이어져 있습니다. 즉 공동성명에 관한 찬반과 별도로 '핵무기 사용이 가져오는 괴멸적 결과와 그 영향'을 우려한다는 점에서는 같다는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참상이 '자국과 동맹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떠한 구상이 새롭게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로트블랫 박사의 높은 평가

그래서 저는 '무기의 파괴력'에만 머무르지 말고 다른 무기와 전혀 성질이 다른 핵무기만의 '더욱 넓은 의미의 비인도성'에 관해 여러 각도에서 파헤치자고 제기합니다.

첫째는 '핵무기가 이 세상에서 순식간에 무엇을 없애느냐는 데'에 바탕을 둔 비인도성입니다.

저는 빈 회의의 토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 가운데 다음 구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누구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성을 말살하는 고문처럼 핵무기를 사용해 일어난

참화는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제기는 스승 도다 제2대 회장이 냉전 대립이 심각하고 핵개발 경쟁이 격렬해지던 무렵(1957년 9월)에 발표한 '원수폭금지선언'에서 가장 강조한 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도다 회장은 그 선언에서 “지금 세계에서는 핵이나 원자폭탄 실험을 금지하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나는 그 핵무기 속에 숨은 발톱을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불법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의 존재를 헛되이 하고, 살아 있는 의미를 빼앗는 '타화자재천'이라는 생명의 근원적인 미망에서 생기는 악이 인간의 존엄을 가장 크게 위협한다고 설합니다.

도다 회장은 가장 심각한 악이 핵무기 속에 숨어 있다고 지적하고 핵실험의 금지는 물론이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많은 민중이 희생해야 성립하는 핵억지이론에서 벗어나도록 세계의 민중이 '생존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언을 발표한 그해에 발족한 퍼그워시회의에서 오랫동안 중심자 역할을 해온 조지프 로트블랫 박사가 이전에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핵무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적 접근이고 또 하나는 도의적 접근입니다. 후자가 종교가로서 도다 회장이 취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고문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금지규범을 확립했듯이 핵무기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도의 기술로도 복원할 수 없는 것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 이어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고 그 뒤를 이어 영국, 프랑스, 중국이 핵개발에 성공했습니다. NPT를 발효한 뒤에도 핵확산은 멈추지 않고, 핵무기 대치가 마치 국제사회에서 '확고부동한 기본적 여건'인 듯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에 깔린 핵억지정책은 궁극적으로 '적국민의 섬멸'과 '핵공격 응수에 따른 자국민의 막대한 피해'를 불러옵니다.

그것은 도다 회장이 단호히 척결했듯이 '적과 아군'이라는 범주를 넘어 한사람 한사람이 살아온

증거나 사회와 문명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모든 것에서 존재하는 의미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NPT 재검토회의에서 상영하려고 원폭투하 이전의 히로시마 복원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다나베 마사아키 대표는 “아무리 고도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써도 결코 복원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잃어버린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또 핵억지 속에서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덧없는 현존재(現存在)’로 깎아내리는 부조리의 세계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허무주의가 사회와 문명을 잠식하도록 더 이상 놓아두면 안 됩니다.

더욱이 빈 회의에서도 초점이 되었듯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인위적인 실수나 기술상의 결함 그리고 사이버공격 등 ‘우발적으로 핵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는 핵억지정책에서 상정 밖의 사태일 뿐 아니라 핵억지정책을 유지하는 나라의 수만큼 위험성이 커지는 구조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바위기 때에는 미소 정상이 ‘13일 동안’ 해결을 모색하고 곰곰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편 어떤 이유로든 핵미사일이 우발적으로 발사될 경우에 공격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겨우 ‘13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피난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한 순간에 빼앗기고, 공격목표가 된 지역도 통째로 파괴되고 맙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오랜 시간을 들여 문화와 역사를 구축해도, 죄다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불합리함’에 압도적인 파괴력이라는 수치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비인도성’의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근대화가 가져오는 폐단

둘째는 ‘핵무기 개발과 근대화 추진이 세계에 가져올 폐단’에 바탕을 둔 비인도성입니다.

2014년 12월에 열린 빈 회의에서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의제에 올렸습니다.

‘피폭자(히바쿠샤)’가 세계 공통어가 될 만큼 세계 각지에는 2000회 이상 실시한 핵실험의 영향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셜제도공화국이 12년 동안 겪은 핵실험의 폭발규모를 환산하면 하루에 히로시마형 원폭 1.6개 분에 상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핵무기 사용을 막아왔다고 주장하는 핵억지정책이 실제로 어떤 사태를 불러왔느냐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핵억지정책은 위협이 또 다른 위협을 부르는 핵군비 확산경쟁을 일으키고, 실험이라는 명목으로 핵폭발을 몇 번이나 자행했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나 민족도 짊어지면 안 되는 짐’(마셜제도공화국 드 브럼 외무장관)을 세계에 늘리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1996년에 채택한 이후 핵폭발을 동반하는 실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지만 거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태는 183개국 서명한 CTBT가 아직 발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합니다.

또 CTBT는 ‘핵무기의 근대화’를 금지하지 않았지만, 핵억지정책이 이어지는 한 어떤 나라가 근대화를 도모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 할 것이므로 세계에서 연간 1050억 달러에 이르는 핵무기 관련 예산이 더욱 늘어날 우려도 있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보유국의 복지와 보건 향상에 충당하고 또 빈곤 등으로 괴로워하는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 데 쓴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매당초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세계의 인적자원과 경제자원의 군비전용을 최소한으로 명시한 유엔헌장 제26조의 정신에 반할 뿐 아니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결과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면에서 ‘지구사회의 폐단’을 거의 고정화하는 비인도성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군사적 긴장 상태로 주위를 몰아넣다

셋째는 ‘핵태세 유지가 많은 나라를 늘 군사적 긴장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비인도성입니다.

201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 핵보유국은 조속히 힘써야 할 과제로서 안전보장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욱 낮추자고 서약했습니다.

지난해 그 진척 상황을 보고했는데 변화는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보유국 지도자가 핵 무기 사용을 상정할 수 있는 상황은 극히 생각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위협에 핵무기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억지정책의 유지'를 이유로 서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유국은 자국과 동맹국이 핵공격에 위협당할 우려를 현단계에서 완전히 불식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더라도 긴장 요인을 하나하나 끈기 있게 없애고, '핵무기 사용 위협'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애당초 핵무기 사용은 물론이고 그 위협도 국제사법재판소가 1996년에 권고적 의견에서 나타낸 대로 일반적으로 위법입니다.

심리(審理)를 맡은 페라리 브라보 판사가 의견서에서 "유엔헌장 제2조 제4항과 제51조 사이를 가르는 강이 핵억지이론이라는 큰 돌 때문에 넓혀졌다."고 말했듯이 핵억지정책의 존속은 헌장이 당초 상정한 자위권을 둘러싼 상황을 크게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제2조 제4항에서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원칙적으로 위법이라고 규정하지만,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는 핵무기 대치가 이어지면서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로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의 기한부로 한다거나,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에 바탕을 둔 대비를 늘 필수로 해야 하는 상황, 이를테면 원칙과 예외의 역전 현상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냉전 종결 이후에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간의 무력 충돌은 물론이고, 대립이 깊어지지 않아도 핵억지에 바탕을 둔 위협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군사적 긴장에 늘 휘말립니다.

그 결과 보유국과 동맹국 사이에서 핵무기의 기밀보호와 핵관련 시설의 보안을 빌미로 안보 제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한편, 핵무기의 위협에 놓인 나라 사이에서 핵개발이나 군비증강 요인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최악의 경우에는 타국에 예방 차원의 무력 행사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 아닐까요.

오스트리아가 표명한 '약속'

이상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관해 무기의 파괴력에만 그치지 않고 프레임을 '핵시대의 지속이 불러오는 비인도성'에까지 넓혀 세가지 각도에서 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핵억지정책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게 했는지 그 현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이후에 핵무기 사용을 단념하도록 제동을 건 것은 억지력보다 '핵무기 사용이 불러올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실제로 '핵우산' 밖에 있는 나라들도 핵 공격의 대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핵무기지대처럼 핵군비의 선택권을 공동으로 포기한 경우에는 '비핵에 대한 약속의 무게'를 넘으면 안 되는 하나의 선으로 핵보유국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난해 12월에 열린 빈 회의에서 오스트리아가 의장국이 아닌 한 나라로서 핵무기가 미치는 비인도적인 영향과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SGI는 핵무기폐기국제캠페인(ICAN)과 세계교회협의회가 빈에서 공동으로 연 종교 간 회의에서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힌두교, 불교의 신앙자들이 핵무기 폐기를 모색하는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빈 회의 일반토론 자리에서 "우리는 약속한다."고 명기한 공동성명으로 정리해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한가지 의견으로 발표했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행동의 공유'를 낳는 열쇠는 이러한 약속을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지 70년을 맞은 올해에 얼마만큼 결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착상태를 깨는 성과가 있는 토의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NPT를 근거로 핵군축에 관한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재검토회의에서 NPT 제6조가 요청하는 '핵군축을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생각해보면 1995년에 NPT의 무기한 연장을 결정한 뒤로, 여러 합의를 했지만 대부분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과제만 계속 쌓였습니다.

169개 나라가 총회 결의안에 찬성한 이유도 핵 문제를 둘러싼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강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먼저 되도록 많은 정상이 재검토회의에 참석할 것과 각국의 정상들 앞에서 '핵무기의 인도적 영향에 관한 국제회의'를 총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각국의 정상 또는 대표는 연설할 때 2010년에 열린 재검토회의에서 모든 가맹국이 우려를 표명한 '핵무기가 불러올 괴멸적인 인도적 결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자국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언급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PT 제6조가 요청하는 효과적 조치를 검토하고 특히 '핵군축'에 관한 항목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제창합니다.

NPT 세개의 기둥 중, 비확산과 평화적인 핵 이용은 국제원자력기구가 활동하고 그 밖에도 CTBT나 핵안보정상회의 등이 있지만, 핵군축을 계속적으로 토의하고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2000년에 열린 재검토회의에서 채택한 '핵무기의 완전폐기를 이루겠다는 보유국의 명확한 약속'을 구체적이고 신속히 실행하도록 'NPT핵군축위원회' 같은 조약의 보조기구를 지금 신설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NPT에는 가맹국 3분의 1이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NPT핵군축위원회' 설치를 도모하고, 군축계획과 검증제도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핵무기 제로의 기반이 되는 '번복할 수 없는 대폭적인 핵군축'을 진행해야 합니다.

피폭국 일본이 해야 할 역할

둘째는 '핵무기금지조약' 체결입니다.

세계에는 여러 어려움과 과제가 있지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지 70년을 맞는 올해에 '핵무기금지조약' 교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합니다.

먼저 NPT재검토회의의 성과를 확인하고 조약의 교섭을 위한 기반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2년 전 유엔에서 열린 '핵군축 다자협상을 위한 개방형 실무그룹'을 기반으로 NGO와 협의를 나누는 조약을 교섭하는 자리로 발전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런 다음에 유엔총회에서 2018년까지 개최하기로 한 '핵군축에 관한 유엔 고위급회의'를 내년에 열어 조약안을 정하면 어떨까요. 피폭국 일본이 다른 나라나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구축하는 도전에 박차를 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로시마에서는 8월에 유엔군축회의를, 10월과 11월에 세계핵피해자포럼을 열고 나가사키에서는 11월에 퍼그워시회의 세계대회를 엽니다.

SGI도 9월에 다른 NGO와 협력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세계청년서밋'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가학회 청년부는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쳐 512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세계청년서밋에서 세계 청년의 이름으로 핵시대와 결별을 결의하는 선언을 채택해 '핵무기 금지조약'을 바라는 청년의 연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싶습니다.

뒤돌아보면 70년대 전반에 역사가 토인비 박사와 대담했을 때 박사는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부권'을 전 세계에 확립하는 일이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미국과 쿠바가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국교가 단절되고 이듬해에 발생한 쿠바위기를 해결로 이끈 것도 핵 사용을 철회한다는 '거부권'을 미소 양국이 자발적으로 서로 행사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전망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거부권'을 함께 행사해 '어느 나라 사람도 핵무기 사용으로 참상을 입는 일이 없는 시대'를 함께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에 힘쓴 성공사례를 발신

끝으로 세 번째, '행동의 공유'로서 지속가능한 지구사회의 건설을 말하고 싶습니다.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려면 교훈과 경험을 공유해 사태의 악화를 막고 순환형사회로 바꿀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 노력은 유엔이 새로운 목표를 추진하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되고 특히 이웃나라의 협력은 매우 소중한 기반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모델지역'을 만들어 인재육성을 비롯해 성공사례를 발신하는 데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지난해 11월, 약 2년 반 만에 중일정상회담을 실현했습니다. 양국의 우호를 바라며 행동한 사람으로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진 양국 관계가 개선의 방향으로 한걸음 내딛게 되어 기쁩니다.

정상회담을 한 뒤에, 지난해 12월에 '중·일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종합 포럼'을 다시 시작해 지난 1월 12일에는 '해상연락메커니즘'에 관해 협의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제도 확보가 시급한 만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조기에 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또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입니다.

양국 사이에 정치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일이 과제지만, 그래도 해마다 500만명이 왕래하는 등 교류가 착실히 넓혀지고 있습니다.

국교정상화 당시에는 연간 1만명이 오갔지만, 현재는 중일 간의 왕래를 웃도는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또 상대 나라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여전히 높지만, 한일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양국 모두 60퍼센트를 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통 이익을 함께 창출하다

덧붙여 제가 기대를 거는 점은 최근 십수 년 동안 쌓은 '한중일' 삼국간의 협력입니다. 1999년에 환경분야에서 삼국간 협력을 시작한 이후,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을 모색하면서 지금까지 장관급 회의 18회를 포함해 '50개 이상의 정부간 협의 채널'과 '100개 이상의 협력사업'이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삼국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려면, 정치적인 긴장감이 고조된 3년 전에 중단한 '한중일정상회담'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유엔의 새로운 목표 채택을 앞둔 지금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중일정상회담'을 열어 한중일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모델 지역협정'을 검토하면 어떨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을 맞는 올해,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부전(不戰)의 결의'를 세계에 선언하고, 유엔의 새로운 도전을 지지하는 지역협력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껏 한국의 이수성 전 총리와 중국의 저우언라이 전 총리를 비롯해 양국의 지도자, 지성인과 대화하면서 함께 전망한 것은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이 우호를 깊이 다져 지구의 이익과 인류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아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수세기 동안 대립하던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 사이의 화해의 길을 여는 데 노력한 장 모네는 일찍이 유럽 각국과 협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작품을 만들려고 이 자리에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한 교섭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이 우리의 이익이다.”

한중일 세 나라 사이에는 2011년 9월에 설치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⁶이 있습니다.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의 역할 중에는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건을 탐구하고 정하는 일'이 있는데 유엔의 새로운 목표와 관련 있는 모든 분야에서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SGI는 샌다이에서 열릴 유엔방재세계회의의 관련행사로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 대표가 모여 방재와 부흥을 위한 지역협력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⁶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1999년부터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맺은 협력관계가 발전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체제를 만들고자 2009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9월 서울에 사무국을 개설해 활동을 시작했다. '3국의 평등성'을 기본으로 하며 예산은 각 나라가 3분의 1씩 부담한다. 사무국과 관련한 사안은 3국에서 파견한 사무총장 1명과 사무차장 2명이 결정한다.

사무국의 협력을 얻어 여는 회의이지만, 유엔의 새로운 목표를 후원하는 지역협력은 정치 차원뿐 아니라 풀뿌리 민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변을 넓혔을 때 비로소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저변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청년교류의 확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1963년 엘리제조약을 계기로 청소년 교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의의를 자주 지적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적대감은 깊은 우정에 자리를 양보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엘리제조약 체결 50주년에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기고한 글에 있는 아주 인상적인 구절입니다.

이 말대로 지금까지 800만명 이상의 청소년이 교류하면서 양국을 잇는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했습니다.

한중일도 8년 전부터 청소년 교류사업을 시작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그 규모를 대폭 넓히기 바랍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류와 문화교류의 확충은 물론, 유엔의 새로운 목표와 세 나라의 협력에 관한 활동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중일청년파트너십제도’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환경문제와 재해방재 같은 공통과제를 둘러싸고 함께 땀을 흘리며 고생한 경험은 젊은 세대에게 ‘자신들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한다’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장래에 까지 상대방의 나라를 잇는 신뢰의 토대가 됩니다.

창가학회 청년부도 1985년에 중화전국청년연합회(전청련)와 교류의정서를 맺고 30년 동안 교류해 왔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앞으로 10년간의 교류의정서를 체결하고 우정의 물결을 더욱 넓히자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도 규슈청년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회를 통해 교류를 넓혔습니다. 얼굴을 서로 마주하는 교류로 발전한 청년의 네트워크만큼 ‘평화와 인도주의의 21세기’를 만드는 강한 힘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증대

둘째는 유엔의 새로운 목표 달성 기한인 2030년까지 '한중일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증대'를 목표로 삼자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40년 전 저우 총리를 만났을 때, 쌍방의 최대 관심사는 양국 민중의 우호를 어떻게 심화하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국교정상화제언(1968년 9월)에서 "국교정상화는 상호 국민이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면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추진에 공헌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저우 총리도 민중과 민중이 서로 진심으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진정한 우호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념의 배경은 젊은 시절에 일본에서 1년 반 동안 유학생생활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과도 교류한 사상가 요시노 사쿠조는 약 100년 전 저우 총리가 유학하기 1년 전(1916년)에 중일관계가 험악해지는 사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이 서로 신임하고 존경하는 관계라면 때때로 정치적, 경제적, 개별적인 문제로 반목하고 오해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마치 바람에 따라 잔물결이 일어나는 바다와 같아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친선관계는 어떤 동요도 하지 않는다."

제 오랜 신념도 이와 같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서로 소중히 여기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겹겹이 쌓는다면 우호의 거목은 어떠한 풍설도 견디고 가지와 잎이 무성히 자라 미래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중일 간에는 356곳, 한일간에는 156곳, 한중간에는 151곳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자매결연을 확대해 일대일의 우정을 키우는 조류를 함께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은 '세계'

이상 크게 세 가지에 걸쳐 제안했는데 유엔의 새로운 목표를 비롯해 수많은 과제에 도전하는 최대의 원동력은 '민중의 연대'입니다.

생각해보면 40년 전인 1월 26일 밤에서 SGI가 발족했을 때, 제 가슴속에는 “지구 상에서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고 싶다.”고 하신 도다 제2대 회장의 열렬한 염원과 ‘지구민족주의’라는 전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제가 국적란에 ‘세계’라고 쓴 이유도 스승의 바람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는 51개국·지역에서 모인 멤버와 함께 채택한 선언에서 SGI의 기본정신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평화를 창출하려면 정치와 경제의 연대보다 생명의 존엄을 자각한 민중과 민중의 마음과 마음의 연대가 더욱 중요하다.”

“항구평화는 모든 인류가 행복을 누리야 비로소 실현된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의 행복과 미래의 존속을 위해 ‘무엇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 하는 자비의 이념을 앞으로 새로운 사상의 인자(因子)로 삼아야 한다.”

활동 무대가 192개국·지역으로 넓혀진 지금도 그 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우정을 넓히는 활동을 기반으로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세계’의 실현은 물론 비참이라는 두 글자를 없애는 데에 온 힘을 다해 도전해 모든 인간의 존엄이 빛나는 세계를 개척하겠습니다.

참고문헌

1. ‘도다 조세이 전집 제3권’
2. ‘양심의 트럼펫’ 마틴 루터 킹 저, 나카지마 요리코 옮김, 미스즈쇼보
3. ‘복음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 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 ‘원시불전을 읽다’ 나카무라 하지메 저, 이와나미서점 인용 및 참조
5. ‘나에게 종교’ 마하트마 간디 저, 다케우치 게이시 외 옮김 신평론
6.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10권’ 제삼문명사 현대표기로 개정

7.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2권’ 제삼문명사 현대표기로 개정
8. “평화의 문화’ 가 빛나는 세기로!’ 이케다 다이사쿠/ 엘리스 볼딩 저’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 114권’수록
9. ‘정의의 프런티어’ 마사 누스바움 저, 가미시마 유코 옮김, 호세이대학교출판국
10. ‘붓다의 진리의 말씀 감홍의 말씀법구경’ 나카무라 하지메 옮김, 이와나미서점
11. ‘통찰과 책임감’ 에릭 에릭슨 저, 다타라 미키하치로 옮김, 세이신쇼보
12. ‘유년기와 사회’ 에릭 에릭슨 저, 니시나 야요이 옮김, 미스즈쇼보
13. ‘생애발달과 라이프스타일’ 스텔라 아쓰시/ 니시히라 다다시 저, 도쿄대학교출판국 참조
14. ‘간디의진리’ 에릭 에릭슨 저, 호시노 미카코 옮김, 미스즈쇼보
15. ‘평화의 철학 관용의 지혜’ 이케다 다이사쿠/ 압두라만 와히트 저 우시오출판사
16. ‘동에서 서로’ 아널드 토인비 저, 구로사와 에이지 옮김, 마이니치신문사
17. ‘유럽을 쓰다’ 우르줄라 켈러/ 일마 라쿠자 저, 니모토 후미나리 옮김, 초에이사/ 로고스기획
18. ‘유마경을 읽다’ 스가누마 아키라 저, 일본방송출판협회
19. ‘인간과 국가’ 자크 마리탱 저, 구보 마사노리/ 이나가키 료스케 옮김, 창문사
20. ‘세계기구가 정치철학을 희구’ 마누엘 프뢰리히 저 ‘세계평화를 향한 모험’수록 미쓰하시 미도리 옮김, 신평론
21. ‘전체주의의 기원2’ 한나 아렌트 저, 오지마 미치요시/ 오지마 가오리 옮김, 미스즈쇼보
22.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전집 제1권’ 제삼문명사 참조
23. ‘요미우리신문’ 1995년 11월 29일자
24. ‘나는 쓰고 싶은 것을 쓴다’ 스티브 비코 저, 미네 요이치/ 마에다 레이/ 진노 아키라 옮김, 현대기획실
25. 피스 데포 ‘핵무기 핵실험 모니터’ 제462호
26. ‘도다 조세이 전집 제4권’
27. ‘지구평화를 위한 탐구’ 이케다 다이사쿠/ 조지프 로트블랫 저 우시오출판사
28. NHK히로시마핵평화프로젝트 ‘핵무기 재판’ NHK출판
29. ‘21세기를 여는 대화’ 이케다 다이사쿠/ 아널드 토인비 저 ‘이케다 다이사쿠 전집 제3권’ 수록

30. 언론NPO와 동아시아연구원 ‘제2회 한일공동여론조사’
31. ‘장 모네 회고록’ 장 모네 저, 곤도 다케히코 옮김, 일본관세협회
32. ‘요시노 사쿠조 선집8’ 요시노 사쿠조 저, 이와나미서점 현대표기로 개정